

지역 매 아리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월례회 개최

김제시 광활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정동주)는 지난 15일 자치위원 2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에서 10월중 주민자치 월례회를 열었다.

이번 월례회의 안건으로 '사랑의 두부 나눔행사' 준비에 따른 서리태콩 수확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지정산 아카데미 참여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광활보건지소 옆 유희지를 활용하여 매년 고추와 배추를 식재하여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연말이면 여러기관에서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추진 사업이 중복되어 지난해부터는 직접 생산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나눔행사를 가지고 있다.

12월에는 영양이 풍부한 서리태콩을 수확후 두부로 만들어 관내 20개 마을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지역사회가 한가죽이 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콩 수확량 증대를 위해 지난 4월초에는 15톤 트럭 13대 분량의 휴으로 복토 작업을 실시해 토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콩심기를 비롯하여 친환경 살포, 제조작업, 콩 순차르기 등 일련의 모든 작업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영농철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비상구 등 피난시설 집중 점검

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시 다중이용업소와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물건적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9일부터 시행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는 소방·전기·가스·건축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합동점검 중이며, 특히 화재 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상구에 대해 꼼꼼한 확인과 더불어 관계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을 차단·기능정지 등 소방안전 저해 행위, 피난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변경하는 행위, 피난시설 등의 주위에 장애물 설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비상구 폐쇄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조직개편안 윤곽 '초미관심'

완주군, 내년 1월 정기인사시 시행에 들어가

실제 1개과 1개 사업소 늘어 승진 적체현상 완화될 듯

완주군 민선 7기 조직개편안 윤곽이 나타났다.

2개과가 1과로 합과되고, 2개과와 1개사업소가 신설되는게 주 골자다.

특히 조직개편안(이하 개편안)이 확정되면 올해 말 공로연수자 포함, 최대 7개 사무관(5급) 자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내가 벌써부터 술렁거리고 있다.

16일 완주군은 현재 2국 1실 16과 2직속 3사업소 13읍면체제에서 2국 1실 17과 2직속 4사업소 13읍면으로 개편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꾸며진 개편안은 먼저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와 관광체육과를 합과하기로 했다.

또 행정복지국 문화예술과 도서관 관련 팀은 도서관생태학습사업소로

개편한다는 안을 내놨다.

이와함께 건축과와 먹거리 정책과도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으며, 신설되는 2개과, 1개 사업소, 모두 경제안 전국 산하에 두기로 했다.

존폐 논란이 됐던 공동체 활력과, 공영개발과, 시설공원사업소는 그대로 존치하기로 개편안에 포함됐다.

이 결과 현행 2개과가 1개과로 줄어들고, 2개과와 1개 사업소가 늘어나면서 실제 1개과와 1개 사업소가 늘어난 셈이 된 것.

이처럼 개편안이 도출되면서 내년 1월 정기인사시 각 직렬간 경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12월 4·5급 공로연수자 3명이 확정된 가운데 2명의 공로연수대상자는 본인의사에 따라 연수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많은

/완주=이종복 기자

5자리 승진요인이 생긴다.

여기에 신설될 먹거리 정책과 1자리, 도서관생태학습사업소 1자리, 승진요인을 합하면 전체 7자리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직렬별로 살펴보면 올해 말 확정된 공로연수자 3명은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이며, 미확정된 2명은 행정직과 농업직 각각 1명이다.

이 경우 5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면 행정직 3자리, 보건직 1자리, 농업직 1자리 총 5자리 승진요인이 생기며, 신설될 1개과와 1개 사업소는 특성상 농업직 1자리, 사서직 1자리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급 상당 농업기술센터 지도관에 올해 말 공로연수에 들어간

다. 한편 조직개편안은 오는 19일 임법예고→11월 완주군의회 상정, 12월 예산결산 의결 후 같은 달 20일 전북도경유→공표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시 시행에 들어간다.

/완주=이종복 기자

"더 큰 나눔 실천으로 봉사할 것"

최정복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물적분야 장관상 수상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온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정복 위원이 16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 신관 스튜디오에서 개최되는 '2018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물적 분야 장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는 나눔국민대상은 인적, 물적, 생명 나눔, 희망 멘토링 등 4개 분야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온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정복 위원은 2000년 부인군 등 3진면 과출소장으로 재직 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78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나눔을 시작했다. 이후 마을회관 건축비, 마을 표지석 건립비 지원 등 고향사랑을 실천해왔으며, 2017년에는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로 가입하고 전북아너 44호(전국 1,771명), 김제시 3호로 회원이 되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최정복 위원은 "앞으로도 더 큰 나눔 실천으로 지역사회와 소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하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기부 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실시

김제시, 오는 30일까지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올해 추진한 규제혁신의 시민 체감도를 확인하고 규제혁신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평소 시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향을 조사해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민들은 김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내 기업체는 설문서 팩스 발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분야별로 분석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불편사항은 규제 개선 추진사항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9 규제개혁 추진 방향 설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조사결과가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성남 조은시스템 대표이사 지평선아카데미 초청 강연

제580회 김제 지평선아카데미는 잡코리아 창업자인 김성남 조은시스템 대표이사를 초청하여 18일 오후 3시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감사와 나눔의 즐거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날 강연에서는 열정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과 태도이며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행동, 차별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갖는 것이 진정한 주류의 삶이라고 강조하는 강의를 진행했다.

21년간 직업군인 생활 후 54세의 나이에 1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조은시스템을 창업하여 1천억원의 회사로 키운 김성남 대표이사는 총복은행 안전관리실장과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비상위위원, 국제피플투피플 한국본부 총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조은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은세이프 대표이사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저서로는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는 좋은 성공'이 있으며, 상훈으로는 국무총리표창(1979), 인헌무공훈장(1968), 미국동성훈장 및 총무무공훈장(1967)이 있다. 이 날은 요촌동 체험의 날로 요촌동 소개와 요촌동 주민자치 통기타동아리의 기타연주공연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강연 분위기를 한층 돋움 예정이다.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외식업소 맞춤형 컨설팅 본격 추진

50개소 선정 ... 맛·메뉴 등 다방면 지원

11월 완주농산물사용 인증업소 지정 참여 독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완주군이 관내 외식업소까지 영역을 넓혔다.

완주군은 올해 처음 실시한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 대상업소 50개소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완주군은 외식시장 및 건강지향적인 소비트렌드 변화 등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8월 말 관내 전체 12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 대상업소 선정은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소 중 관내에서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하고, 업종은 한식, 규모는 50평 이상(좌석수 20석 이상), 종사자가 1명 이상인 일반음식점이다.

컨설팅은 외식업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고객서비스, 매장위생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 및 외일드푸드축제에서 개발된 메뉴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컨설턴트는 업소 당 4~5회 현장을 방문한다.

또한 이번 컨설팅에서는 완주농산물 사용을 위한 실질적인 컨설팅이 진행돼 오는 11월 완주농산물사용 인증업

소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외식업소 컨설팅을 통해, 완주군 도시 먹거리 협력이행과 연계하여 건강한 외식업소 확장과 완주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애용하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외식업소가 양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외식업소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11명이 대상업소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한다.

N.S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